



발행인 칼럼

변화의 물결 앞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본 신문이 '미주크리스천신문'이다 보니 많은 독자들이 미국 이민자들이다. 이민자들이라면 이미 큰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살아가는 나라가 바뀌고 이웃이 달라지고 언어가 새로워진 곳이 이민 땅이다. 영원히 고유(固有)할 줄 알았던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여러 변화를 즐기며 지내 온 이민자도 있고 이런 변화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낸 분들도 있으시리라. 그렇다. 변화는 기대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변화를 아예 거절하거나 그대로의 상황에 안주(安住)를 선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세상은 수없이 변한다. 나쁜 의미의 변질도 있고 좋은 의미의 변화도 있다. 변화의 물결을 외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물론 변화의 수용이란 변화의 물결 앞에 무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밖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물결 앞에 나의 선택이라는 역할은 매우 크다.

최근에 놀라운 변화를 몰고 온 것들이 있다. 정말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영되었던 드라마 '전원일기'의 출연진 가운데 이미 고인이 된 박윤배씨가 TV에 출연해 그동안 자기와 함께 연기했던 사람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디지털 휴먼 기술로 고(故) 박윤배씨의 모습과 목소리를 재생시켜 스튜디오에 모여 있던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대화의 내용과 고인(故人)의 감정표현은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웠다. 만약에 현대그룹의 고(故) 정주영 회장이 출연하여 이곳의 사람들과 대화한다면 그의 명언(名言) 중의 명언으로 손꼽히는 '이봐, 해봤어'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그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 '이봐, 해봤어'라는 말은 변화의 세상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임이 틀림없다.

모든 현대인조차 놀라게 하는 또 다른 변화는 인공지능 대화의 기능을 가진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이다. 지난달 말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부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챗GPT를 공무원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도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과 툴(Tool)에 대해 익히고 공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자신도 2023년 신년사를 챗GPT에 써보라고 했더니 몇 자만 수정하면 그대로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될 정도로 잘 작성되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 챗GPT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 준다. 학교 숙제 심지어 박사학위 논문까지 써줄 챗GPT는 교육현장을 매섭게 유린(蹂躪)할 것 같다. 챗GPT는 교육뿐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 그리고 영적인 일들까지 '내게 말거라'며 나설 참이다. 챗GPT에 요한 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설교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쉽게 설교문을 만들어 주리라. 이런 변화의 물결을 공의로운 선택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모든 변화는 마침내 비윤리(非倫理)적 면모만을 보일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자. 변화하는 세상만 핑계하지 말자. 변화 앞에 당당한 나의 선택이 그 변화를 멋지게도 만들고 추하게도 만들 것이다. 단언컨대 세상의 변화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나의 선택임이 분명하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활동의 결정적인 요소(2)

CT, 아주사퍼시픽대학 정수진 교수의 무속신앙의 토양에서 자란 한국기독교의 씨앗

하나님을 한국어로 명명하다

한국에서 '하나님'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정하는 것 또한 선교사들이 무속신앙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일부 선교사들은 무속신앙에서 가장 높은 신이나 '천국의 왕'을 지칭하는 하나님과 같은 전통적으로 신성한 이름을 채택하는 것을 옹호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고유의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면 기독교의 일신교적 관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신들과 다른 영혼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스는 비판적으로 상황화하려고 시도했다.

언더우드와 같은 다른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무속 뿌리라는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꺼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느꼈다. 그가 제안한 대안적인 단어나 이름으로는 진정된 신을 뜻하는 '참신'이나 '높은 군주'라는 뜻의 상주 등이 있었다.

언더우드의 아내 릴리아스 역시 무속적 맥락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바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모든 예배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천국의 화신이며, 이는 구약에서 말하는 바알과 거의 동일한 위대한 천국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과 결부지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한국인들은 기독교적 메시지에 흥미를 갖게 됐다.

미국의 사무엘 모펫 선교사는 현지 시장에서 설교하면서 성령이 다른 모든 영혼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호소했다. 그는 "나는 당신들의 악한 영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성령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선포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영혼도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인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모펫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한국의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가교로 삼아 효과적으로 선포하며 현지인들을 전도했다. 악귀를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해방과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메시지는 지극히 매력적인 선택이었다.

삼위일체를 깨닫다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의 무속신앙에 영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단언하며 더 나아가 이들이 기독교 복음의 불완전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건국 설화인 단군 신화가 삼위일체적 관점과 현저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

단군신화에서 환인(창조자)은 신의 인도를 받지 못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돕기 위해 아들 환웅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낸다. 환웅은 곰인 여자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고, 단군은 대한제국을 세운다.

미국 선교사 헨리 허트는 단군 신화를 기독교 일신교와 삼위일체 신학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환인은 창조주 하나님, 환웅은 성령, 단군은 환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한다고 1902년 한국 왕립아시아학회지 "한국민화"에 기록했다.

허버트 같은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진리로 내세우기보다는 기독교와 한국 문화의 접점을 찾고자 했다. '나와 신학이나 철학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단군신화를 실제로 믿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오크는 "현대 한국의 새로운 종교인 개신교의 문화 신학적 계보를 해독하는 출발점"이라고 기록했다.

여성의 영역

한국 무속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주로 여성들이 무속 행위를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를 '여성의 종교'로 보았다는 점이다. 여성 무속인들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신앙을 전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계층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속인들을 불렀다고 미국 선교사 J.R. 무스는 전했다.

그 결과 여성 무당들은 한국의 그 어떤 계층의 여성들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의식을 수행하고 영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영적인 힘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들의 힘은 한국 주택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을 일컫는 곳인 '안방'에서 보여진다. 남성이나 외국인 선교사는 출입할 수 없는 이 사적인 공간에는 한국 여성들만 초대되었으며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권한을 행사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공적으로는 힘이 없었지만, 안방이라는 친밀한 영역에서는 사적인 힘을 가졌다. "무당, 주부, 그리고 쉰 수 없는 영혼들"의 저자 로렐 캔달은 "여성 무속인들은 한국 여성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카타르시스적 보상을 제공하고 한정적으로나마 해소시켰다"라고 기록했다.

이곳에서 여성 무당들은 집안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의식과 영적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안에 있는 영들을 소생시켰다. 캔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악령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신들을 달래고, 갈 곳 없는 가족의 영혼을 지옥에서 해방시켰다.

이러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무속 의식(굿)은 여성들이 한을 풀고 영적인 힘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은 지속적인 억압과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 고통, 분노와 슬픔을 깊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 유형의 굿이 대표적으로 행해졌는데, 이는 치유 굿, 변영 굿, 장례 굿이다. 굿을 통해 한을 풀 여성들은 종종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했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삼.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께서 65세에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파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 조건: 1.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 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 목사 및 부목사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2.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분. 3. 만 55세 이전의 나이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4.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미국 내 체류 및 목회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신앙 고백 및 자신의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신학자, 목회자 인용). 3. 학력 증명서. 4. 속해있는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안수 증명서. 5. 신학교 교수 및 명망 있는 목회자의 추천서(추천자의 연락처 포함). 6. 최근 설교 영상 2편(온라인 링크) \* 설교 원고 포함.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후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 마감일: 2023년 3월 15일. 3. yspastor2023@gmail.com으로 보내시고 첨부파일은 PDF file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사역자 청빙공고.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는 보수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가진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교육부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를 청빙 하고자 합니다. 직책: 교육 담당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 청빙 대상 및 자격: (1) Part Time or Full time 사역자: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속중인 분. (2) 교회음악 담당자는 교회음악 전공자. 지원 자격: (1) 영어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분. (2)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대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영주권 후원 가능).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신앙 고백서, 사역 경험). (3)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또는 소속 교단 증명서. (5) 추천서 2부(현재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서 및 평신도 리더 추천서). (6) 설교-최소한 2편 이상(설교 주소 Link 혹은 DVD나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7) 가족사진. 지원 방법: (1) 위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접은 지원 마감 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3)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마감 기간: 2023년 5월 31일. 보낼 곳(우편 주소): (1)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2) 이메일: kcalvarylv@gmail.com. 문의: (702)296-9193.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 담임 목사 조웅철

영생장로교회 영생장로교회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http://www.yspc.org | 215-542-0288



###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십시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사도였고 믿음의 친구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지나치게 다툼을 벌였던 것 같다. 그렇게 밀접했던 두 친구 사이를 분리했던 것은 격렬한 불일치였다. 이와 같은 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위대한 성도들도 서로 불일치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들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성도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다. 성경을 보면 삼손과 다윗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성령 충만한 사

람들이 큰 죄에 빠졌다. 그리고 욕과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환란 속에 그들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죽기를 소망하기도 했다. 엘리야와 요나도 삶에 지쳐서 죽음을 원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사람은 없었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도

없었다.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면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마틴 루터의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낙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을 보면 모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일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본다. 물론 그런 아름다운 열매는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셨던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러한 그들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살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거듭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

다. 올해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2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지나온 두 달 동안 어려운 일을 연속적으로 당하며 이번 한 해는 망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10달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10달이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이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아이들이 경기하는 리틀 리그 야구 경기장에 갔다고 한다. 그는 선수 대기실(Dugout)에 있던 한 소년에게 점수가 얼마인지 물었다. 그 소년은 18대 0으로 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때 그 남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야. 굉장히 낙심해 있겠구나!" 그때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가 왜 낙심해야 할까요? 이제 게임이 1회로서 우리는 아직 타석에 서보지도 않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스우면서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18대 0으로 경기를 지고 있지만 자기들의 순서가 오면 그보다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삶엔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특별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단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실 것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다.

david2lord@hotmail.com

### 푸/른/초/장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이 세상에서 누구나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병들면 자연스럽게 사회도 병들게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생활이 중요함입니다. 신실한 믿음생활을 통해 믿음이 싹트고 자라고 꽃피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85세 갈렘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건강한 85세의 어른신으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렘은 네 가지가 건강했습니다.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본문도 85세 고령의 노인이 된 갈렘이 45년 전의 일을 상기하면서 "40세 때나 지금이나 나의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며(수 14:7) 아직 일할 것이 남아 있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85세 고령의 노인이 된 갈렘은 40세 때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둘째, 갈렘은 건강한 믿음(Health of Faith)(8-9)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면 앓는 소리를 합니다. 믿음도 병들면 앓는 소리를 합니다. 믿음

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병든 사람은 앞에서는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원망과 불평과 험담하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소리를 하며 허튼소리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해서 울고불고 낙심하게 만들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거나 협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에 병든 사람은 말을 할 때도 비판을 위한 비판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건설적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건강한 갈렘이 85세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에게 "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수 14:11) 40세에 건강했던 갈렘은 85세에 되어서도 40세같이 건강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몇 푼 더 버는 것, 다른 사람 보다 한자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 밖에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돕는 일

가시가 있다고는 했지만 앓아누운 적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심은 항상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주었다(딤후 4:17)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바울은 끝까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심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를 많이 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렘은 40세나 85세나 늘 생활이 건강(Health in Life)(12)했습니다.

갈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준 말씀이 "내가 네 밭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수 14:12)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갈렘과 여호수아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갈렘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대로 성취되어 땅을 분배하고 있기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업적과 공을 내세우며 우선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지만 갈렘은 오히려 아직도 점령하지 않고 남은 험악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렘은 살아가는 생활도 건강했습니다.

생활이 건강한 갈렘은 "아낙 자손이 아직도 살고 있는 그 산지인 일할 것이 있는 곳을 주십시오. 특히 거기에 있는 철용성 같은 헤브론 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싸워 이겨서 기업을 삼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생활이 건강한 갈렘은 자기가 밭과 피를 흘려 기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며 생명을 감당한 갈렘같이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생활이 건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아직도 일할 것이 남지 않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85세 어른이 40세 젊은이 같이 왕성하게 살아가며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것 같이 주변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갈렘과 같이 소망을 심어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고 이웃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GIVE ME THIS HILL COUNTRY)

### 여호수아 14장 6-12절



첫째, 갈렘은 마음이 늘 건강(Mental Health)(6-7)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 시나이 반도를 거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뽑아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 살살이 정탐해보고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정탐꾼 중에 열 명의 사람은 "네페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민 13:33)라며 부정적으로 보고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한 갈렘과 여호수아는 마음이 병들어 악평을 하는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찢고 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민 14: 8)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인 보고로 악평하지만 갈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우리의 먹이니 가서 취하자라고 낙심 중에

나 85세의 나이가 들었어도 마음이 건강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은 은혜받을 때 건강해 집니다(히 13:9).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은혜받지 못하고 마음이 병들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악평을 하고 허튼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1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은혜받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웃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건강한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잠 4:23).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건강한

이 병들었을 때 앓는 소리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자주합니다. 열 사람의 정탐꾼은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였고 너희 땅이 된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악평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감염시킴듯이 믿음이 병든 사람이 가까이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도 병들어 버립니다. 누가 여러분 곁에 와서 원망과 불평과 험담하는 소리를 하거들랑 이 사람은 믿음이 병들었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밭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수 14:9)며 모세가 보내던 날과 같이 85세가 된 지금도 강건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렘은 40세 때처럼 85세가 된 나이에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셋째, 갈렘은 육체가 건강(Physical Health)(10-11)했습니다.

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죽어 천국에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갈렘 같이 40세의 건강을 85세가 되었어도 누리며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하며 장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많이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육체에 찌르는

제자훈련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사역자 한 분이 탄식하듯 말을 했다. 대학 선교단체에서 영리하고 영민하여 제자훈련을 잘 받아 문제없이 사역을 잘 감당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개체 교회에서는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목사님과 교회를 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장소와 지역, 교회에 따라서 제자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다.

실제 이민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한국에서 성경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많이 했다는 분들을 조금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저들의 제자훈련으로 쌓은 배움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분명 예수님의 사역방식인데, 무엇이 문제란

여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 제자의 열매는 소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며,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어디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성도로서,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훈련에 앞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예배자의 기쁨부으심과 은혜의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는

되는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예배가운데 말씀을 듣고 배하면서 주의 참 제자로 교회와 복음의 유익함을 위해 자라가게 된다.

**교회생활을 통해 먼저 헌신**

예배의 강조와 더불어 교회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을 본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한가지로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한 포기나 내려놓음이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여야 한다.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 무엇인가 나의 것을 먼저 포기하고 버리는 과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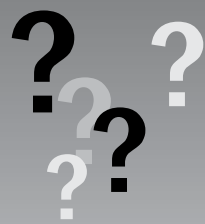
가 되었으며, 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기본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음을 본다. 아주 소수이지만, 저들의 특징은 '한 두번의 감정에 따른 결단과 열정 없음, 헌신 부재 등'으로 요약 된다. 예배중심, 교회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머지를 찾고 구할 때 나타나는 결핍현상의 한 부분이다.

**교회에서 참 제자가 되라**

초대교회 당시, 은혜가 충만하던 때에 바나바가 자기 발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가지고 나아왔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제자였으며, 헌신된 제자가 되어 결국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 그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자였다. 그런 그가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고, 주님앞에 참 제자로 쓰임을 받은 것이다. 참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외계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구에만 사람이 살도록 하신 것으로 믿는데 주님이 재림 때도 이 지구에 오시는 것이 확실한가요?

- 나성에서 김종명 장로

**A:** 1898년에 나온 허버트 조지 웰스의 우주전쟁에 이미 지구를 침공하려 온 화성인들이 등장했고, 이를 필두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가와 감독에 의해 상상 속의 외계 생명체들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그려져 왔습니다. 어쩌면 인터넷에 넘쳐나는 미확인 비행물체(UFO) 사진과 동영상, 외계인 피랍 경험담 등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들 중 과학의 엄밀한 잣대를 통과해 증거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정교한 디지털 합성이 아마추어의 손에서도 어렵지 않게 가능한 요즘, 사진이나 영상의 신빙성은 과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창 1: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의 천은 하늘의 별들의 세계 은하계를 말하고 지는 지구를 말합니다. 먼저 지구외에는 인간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늘 보좌에 주님과 천사들이 있으며 지구외에 다른 세계에 인간과 같은 혹은 고도로 발달된 UFO를 타고 다니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허구이니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지구상에만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외에 다른 별들의 세계에 인간처럼 구원을 받을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인간이 사는 이 지구에 재림하십니다. 다른 곳에 외계인이 산다면 또다시 구원자가 와야 한다는 낭설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 주님과 천사들이 있으며 지구외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허구”

그리고 인간은 지구 외에 바다가 없기에 다른 별들의 세계에서는 환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 뜨거운 여름에는 태양의 열을 흡수하여 기후를 조절하고 추운 겨울에는 흡수하였던 열을 발산하여 기후를 덜 춥게 만듭니다.

UFO는 Unidentified (확인되지 않은), Flying (날아다니는) object (물체)를 말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말해주듯 확실치 않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UFO에 대해서는 대략 6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선진국에서 비밀로 연구 실험하고 있는 비행물체. 둘째, 우주선 집입 도중 떨어져 나간 부분의 비행. 셋째, 이상적 정신 상태와 관련된 시각적 착각. 넷째, 이상기온으로 인해 나타난 자연계의 현상. 다섯째는 우주 외계에서 오는 초현대식 비행물체. 여섯째는 인간의 주의를 끌어 영적 혼란을 일으키게 하려는 사탄의 장난 등입니다.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UFO를 보았다는 사람이 많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증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영적인 존재이므로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집중해야 합니다. 콜로네이 드 교주가 외계인을 만나 우주여행을 했다고 하면서 2만 5천 년 전의 외계인들이 자신들을 복제해 오늘날의 인류를 만들었다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제자도, 제자됨, 성도됨**

-예배, 교회, 헌신-

말인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20년째 코로나 시기에든 거르지 않았던 새해 40일 특새를 며칠 전에 마쳤다. 올해의 주제는 '누가 제자입니까?'였다. 제자훈련 목회로 시작해서, 그 한계를 깨달으며 예배 중심의 제자훈련, 예배 중심의 목회철학을 기반으로 스무해를 달려왔는데,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바를 기록하면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제자됨과 성도됨, 구원.**

제자훈련은 어떤 코스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과정이 수를 통한 지식 소유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주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도 주님이 싫어하면 과감히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바로 제자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더 자신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을 까를 무엇보다 고민하여 기도해야 한다. 버리고, 비우고,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빚어가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스승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들 가운데 박사학위, 큰 교회 목회, 유명한 목사, 무언가 세상에서 누리고 호령할 만한 어떤 것을 얻는 일에 대하

뜻이다. 구원의 감격속에 드러지는 예배의 감격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제자훈련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주의 교회와 복음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학위를 땀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성취감이 생긴다. 그 다음 부터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본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박사학위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인격적인 준비의 훈련이 부재한 지식의 열매로서는, 한 사람을 참된 인간됨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된다.

그래서 최고의 제자훈련은 반드시 참 예배자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제자훈련의 QT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그러한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원래 그 말씀을 본질로 들을 수 있는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능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의 종을 통해 잘 듣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중의 기본은,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새겨 온전히 듣는 것, 참 예배자가

통해 세상을 향해서도 목숨을 내어놓으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은 결코 개인주의에 자신을 방임할 수 없다. 개인주의적인 개별 활동에 머무르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제자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 사명감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신을 드러는 헌신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이 친히 양육한 초대교회 열두 제자들도 결국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한 핏방의 때에 살기위해 도망쳤던 저들이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에 먼저 성공했기 때문이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유무상통하며 함께 섬길의 헌신을 이루었을 때, 저들의 삶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후, 교회생활이 온전하지 못할 때,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음을 본다. 순서가 분명하게 적용되어 나타남을 성경이 증거한다.

제자의 사명도 예배와 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먹고사는 직업(job)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목회자, 제자, 사역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왜 목사

제자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악한 세상에서 더 강한 제자로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악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진정한 제자이다. 어디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를 피하고 벗어나서 먼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맞보아야 한다.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감당했다. 자기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영원한 선생이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 오늘날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신앙자세가 어떠한가?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목회자와 함께 감당할 천국 복음과 사역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제자훈련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할 시점이 다. 비겁하고 도망가는 모습의 제자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 밖 제자훈련이 아닌, 교회 안의 제자훈련, 주의 교회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됨의 훈련과 양육이 참 필요한 시점이다.

교회안에서 예배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며, 주의 종과 한가지로 섬기며 동역하는 가운데, 먼저 교회안의 제자가 되어라. 주님이 반드시 순교의 제물의 영광을 얻기까지 복되게 사 용하여 주실 것이다. davidjeon@yahoo.com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5)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3장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죽음(3)

\* 교리 1의 적용: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4) 비 회심자의 세 가지 특징

악인은 다음 세 가지로 알 수 있다.

(1) 첫째 악인은 자신의 최고 만족을 땅에 둔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며, 하늘의 행복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좋아한다. 악인은 육체의 일을 구

을 분별한다.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믿으며, 그의 마음은 그 영광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느 것보다 이러한 영광에 마음을 기울인다. 모든 회심한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며 사랑한다. 하늘나라의 행복이 세상적인 번영보다 그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이다(빌 3:18, 21; 마 6:19-21; 골 3:1-4; 롬 8:3, 6-9, 18, 21; 시 73:25-26).

(2) 둘째 악인은 출세하고 세속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 중요한 일로 삼는 자들이다.

비록 그는 성경을 읽거나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도 다시 일어나서 죄 범한 것을 회개하며 가까이 알고 있는 어떤 죄에서도 떠나려고 한다(골 3:1-5; 마 6:20, 33; 눅 12:21, 14:18, 24, 26-27, 18:22-23, 29; 롬 8:13; 갈 5:24).

(3) 악인의 영혼은 결코 구속의 신비를 분별하거나 맛보지 못한다.

그는 이 세상에 오신 구주를 감사함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구속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자기 죄의 형벌과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로 회복되기 위해 자기 영혼의 의사인 구주에게 가까이 통치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믿으며, 지혜, 의, 거룩케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위탁한다. 그리하여 이제 그가 사는 것은 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는 것이다(요 1:11-12, 3:19-20; 롬 8:8; 빌 3:7-10; 갈 2:20; 요 15:2-4; 고전 1:20, 2:1).

5) 회심에 대한 사람들의 피상적인 견해

\* '나는 회심했다'는 자기 속인수를 경계하라!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스스로 회심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새로운 견해를 취하고서는 침례교파와 웨

"모든 회심한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며 사랑한다"

하며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비록 그가 하늘이 땅보다 더 좋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는 온전한 거룩한 삶보다는 세상에서 건강과 부와 명예를 가지는 삶을 추구한다. 비록 그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참으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결코 알지 못하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세상과 육체의 쾌락에 더 많이 둔다.

\* 악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인이요 회심하지 못한 자이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를 받고, 신앙의 의무들을 형식적으로는 많이 행하며 부끄러운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모두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나 회심한 자는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지 않는다.

\* 악인의 목표는 세속적인 즐거움이다.

반대로 회심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을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일로 삼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취하지만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여행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조물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며, 죄를 미워한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경향과 성품을 가진다. 죄를 범해

를 받지도 않는다.

\* 악인은 자기를 치료하려는 의사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유익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으며, 그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치료 수단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다. 비록 그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결코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맡긴 적이 없다. 반대로 회심한 영혼은 스스로 죄인임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평화와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잃어버렸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구속 사건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주 예수를

어겨봐 혹은 교황주의자 등등의 꾀에 들어간다. 또한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양심의 확신이나 힘을 가지고 삶을 교정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속인을 당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악인이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자기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마 21:31) 죄와 비참, 그리고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가 더 쉽다. 이에 반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회심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속고 마는 것이다.

(다음 호에는 '무엇이 참된 회심인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yoo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겨울 한파

두 주 전, 텍사스 오스틴에 겨울 한파가 왔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오랜 세월 그 자리에서 텍사스의 따운 빛을 피하게 해주었던 키가 큰 나무들의 가지가 잎사귀에 달린 무거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토막이 나고 뿌리째 뽑히기도 하며 또 큰 가지 통째로 원줄기에서 뚝 떨어졌다. 추위에 약한 나무여서일까? 아니면 봄에 잎을 떨구기 위해 겨울내 불붙고 있었던 많은 잎 때문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며 여기저기 산재한 부러진 큰 동치들을 보며 못내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도 잠시, 전기가 순간적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정전이 되었다. 영하의 날씨에 내리는 비는 얼음이 되어 정겨운 나무, 오랜 벗들의 모습을 흥취하게 망가뜨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도 고드름이 맺히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컴컴한 집 안을 밝혀줄 촛에 불을 붙이고는 벽난로 주위에 모였다. 학창 시절 때 수련회 기간이면 단골처럼 있었던 모닥불 주위에 모여 기타 치고 노래하던 그 시절을 연상하며 우리는 기타 치고 노래하며 심란한 저녁을 새로운 환경에 씩씩하게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4일간 갈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말이다.

정전된 첫날 밤은 쉬이 잠들지 못했다. 정원에서 쿵쿵 떨어지는 나뭇가지들 소리와 코가 시리고 얼굴이 시려서였다. 길은 온통 얼음이 되어 학교는 휴교령이 떨어졌다. 전화 배터리도 곧 방전될 위기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 저녁을 갖다주고 싶다고. 다짜고짜 감사의 말만 빨리 남긴 후 배터리 2%가 남은 전화를 끊었다.

어느 분이 따뜻한 삼계탕을 식구 수대로 끓여 냄비에 담아왔다. 코끝이 찡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기라고 오늘 저녁 메뉴를 삼계탕으로 하게 하신 것 같으며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분이 집을 방문하여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여러 기자재와 전동들을 잔뜩 두고 갔다. 집에 있던 모든 전동들이 총출동한 것 같았다. 그리고는 벽난로가 신경에 쓰였던지 일산화탄소를 염려하는 문자가 올랐다. 방소가 말도 없는 분이 이렇게 자상한 마음을 표현해주시니 또 코끝이 찡해왔다.

밤늦게 카톡이 온다. 중보기도 팀장이 중보기도 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우리를 위해 기도부탁하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글썽 거렸다. 팀장 집사님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니 그녀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하며 또 감동을 주었다.

겨울 한파는 우리 동네의 외관을 폭격 맞은 흉측한 곳으로 만들어버렸고 우리 집 또한 여러 군데를 손질해야 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온기를 전해주었고 상황이 매몰되어가던 나를 일깨우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시린 발과 손, 얼굴과 몸이었지만 우리의 이런 상황을 눈여겨보시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포근한 시간이었다.

"여호와께서 .....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시편 11:4).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제 8회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

장려상 김진혜 장로 (브라질 쌍쌍울로 연합교회)

### 한 달란트(박성현, 두란노)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가 매년 주최하는 독후감 공모전 추천 책들의 제목을 훑어봤을 때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솔직히 좀 거슬렸다.

“한 달란트”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정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의 주인공은 영락없이 게으른 자 곧 하나님이 저주하신 죄인으로 내 마음에 못을 박으셨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이 책의 저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용기로 이런 제목을 선정했는지 호기심이 서서히 오르면서 한국에 나가 있는 딸에게 이 책을 부탁했다. 우선 한 분이 아닌 부부 선교사님의 프로필을 대하니 막강한 이력서를 소유한 교수로서 또한 과학자로서의 신분은 이 책의 제목과는 상반된 분위기였다. 20달러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는 간증은 그저 때때로 자주 들은 고백이고 유학생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선 별로 큰 감동거리가 되지 않았다. 지구촌 여러 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은 그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고 특히 노숙자들을 상대로 희생의 길을 선택한 자들은 기독교인 외에서 여기 브라질에서 가끔 접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었다.

몇 쪽을 지나 어린 시절의 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섬뚱 멈춰버렸다. 파라과이! 파라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브라질의 이웃 나라가 아닌가! 상파울루에서 버스로 16시

간이면 국경 도시인 Ciudad del Este에 도착한다. 전 세계 물품들을 낚은 세금으로 브라질로 밀수하는 악명높은 그곳에서 박선교사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단 말인가!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의 고향 지인들과 밖에 유명 인사들이 나사렛이란 그따위 동네에서 인물이 내 마음속 구석에서 들렸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 따라 이민을 가게 된 동구나 “꼬레아”라고 불리며 눈 찢는 시늉을 봐야되는 그 심정, 누구보다 내가 너무나도 격었고 체험했던 나 자신의 삶이다. 10살 때 한국에서 막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기 전에 브라질로 이민을 왔으니 어쩔 박성현 선교사님의 이민 초기의 생활이 나와 똑같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식료품점을 하셨다면 우리 아버지는 조그만 과일 구멍가게를 하셨고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몸과 영의 힘든 나날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어떻게 해서든 공부로 키시겠다는 욕심과 오기로 결국 그토록 원하셨던 대학 법대에 내가 합격하는 바로 그날 병원 침상 위에 걸터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내 품에서 숨을 거두셨다.

우리 삼남매 중에서 공부에 좀 열심이었던 난 브라질의 검사가 꿈이었고 주위 사람들의 동의하는 말에 나 스스로도 공부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 5년 공부를 가까스로 마치고 졸업식에 이어 변호사가 되기 위

한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왜 이렇게 박선교사님 학창 시절의 삶이 나의 그때 상황과 똑같을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나의 과거를 한 걸음 한 걸음 되새긴다. 사립고등학교 1학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은 그때 당시 브라질 이민자들의 유일한 재봉업에 합류해 종사하시면서 형편상 공부를 포기했던 나에게 늘 미안함과 죄책감의 눈치를 비추셨다. 태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당했던 나의 모습이 어쩔 더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았을지 모르겠다.

몇 년이 흘렀을까 대학의 꿈을 잊은 채 그럭저럭 일과 교회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신하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긴 여행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고등교육 인증서를 따냈다. 나를 무시하는 파라과이 사람들 앞에 우뚝 서고 가정의 경제를 염려함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분함과 오기로 가득 찬 나 자신에게 아직 걸음마의 수준에 까우똥대는 믿음에 불길을 일으켰다.

어떻게 박선교사님은 이 와중에도 교회의 리더로서 더더욱 청년부 회장으로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을까... 자칫 담배, 술, 도박 등으로 한 인생을 송두리째 내팽개칠 수 있었을 그 순간들을 무엇으로 막아내셨을까...공장 일을 마치고 귀가한 후 교회에

들러 저녁 9시부터 두세 시간씩 개인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글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감히 나의 옛날 시절을 박선교사님의 지속적인 기도 의 삶이랑 비교할 수 있는가! 난 말의 재능도 없고 그다지 좋은 머리의 소유자도 아닌 데가 믿음 역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 않은가. 한 가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끝없는 나를 향한 신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한국에서 파라과이로. 다음 이스라엘로. 유대인의 고향인 그 곳에서, 더군다나 역사적, 종교적 시각으로 불편한 팔레스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모두의 구세주로 소개하고 가르치셨던 선교사님의 사명의 한계는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주신 사명에 한계가 있는 걸까...

그때 그때마다 다가온 고비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마 7:13-14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받아드리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에 나 자신에게 놓였던 수많은 문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박성현, 장현경 선교사님 부부에게 약속하신 계획이라면 나의 결혼 또한 한없는 하나님의 구체적 인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어머니를 잃고 방향의 길을 걷기 시작할 무렵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 현재 슬하에 세 딸과 손자 둘의 할아버지가 된 나는 그 어떤 영화의 시나

리오보다 반전과 반전에 영기적인 오늘을 사는 장본인 일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첫 부분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끝없는 행진이었다. 예루살렘 쪽의 유대인과 베들레헴의 팔레스타인간을 오가면 받은 사명을 감수했다면 난 전혀 관심없는 옷장사로 새 가정을 꾸려가야만 했다. 내 나름대로 가장이란 책임을 완수하고자 파라과이에서 전자품을 밀수로 사들여 판매하며 아내의 돈벌이에 보탬이 되고자 원했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 방향을 틀어 놓으셨다. 박선교사님의 언어 은사는 받지 못했지만 그나마 남을 가르치는 재능을 허락하셔서 늦게 그 길을 열어 주셨다. 법대를 졸업한 후 생계를 위해 물어버린 인문과에 대한 열정을 30년을 훌쩍 넘어 때마침 찾아온 교육학을 다시 공부하고 곧이어 브라질 포어과를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한국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셨다면 브라질에 와 찢어진 눈의 할아버지가 현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포어를 가르침이 어찌 다르겠는가. 이 첫걸음을 시작으로 브라질 고등학교, 성인, 어린이들까지 가르치게 됐다. 언제부터 또 어디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는지 미처 알지는 못해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뒤를 돌아본다면 50여 년을 뒤로한 채 한국에서 부모님 따라 비행기에 올랐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 책을 거진 다 읽어 내려갈 때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한 하인들을 보았다. 다른 누구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과 하인이었던 본인들만 아는 은밀한 비밀, 이 책은 끊임없는 비밀을 삶으로 풀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으로 나타내는 두 선교사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밖에 나를 거울에 비춰본다. 지금 내가 사는 이 브라질 땅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만약 눈치챘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언제 무엇으로 구체화해야 할지...책을 덮기 전 다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학대학원에서, 남미인들에게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다가가는 박성현, 장현경 선교사님은 나의 “다짐”을 동사 현재로 끌어올린다.

서로 달라야만 가능한 “하모니”... 나의 지금까지의 삶, 이 이상 더 달라질 수 있을까?.....



## 튀르키예 강진 긴급구호 무너진 튀르키예,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Friends of Hope KAFHI 미주기아대책

###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즉각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튀르키예, 시리아 재난현장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급구호 전담 직원을 파견해 긴급구호 키트 배분을 비롯해, 향후 일상 복귀를 위한 재건을 돕습니다. 미주기아대책(KAFHI)은 기아대책(KFHI), 국제기아대책(FH)과 협력하여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월 6일 새벽 규모 7.8의 강진.

7층짜리 건물도, 사람들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의 신음과 생사를 모르는 가족을 찾는 생존자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여 튀르키예 곳곳은 아비규환입니다.

### 사망자 21,000명 (2023년 2월 10일 기준)

시시각각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최대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된 안디옥 개신교회 (기독교감리회)

지금 돕지 않으면 늦습니다. 튀르키예(터키)를 도와주세요.

송금) Bank: Fifth Third Bank (5/3 Bank)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l.  
Account Number: 7935287420  
수표) Pay to the order of : KAFHI  
Memo: 튀르키예 긴급구호  
보낼 주소: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연락처) 847 296 4555, 703 473 4696, 이메일 kafhi@fh.org

**\$50**  
5인 가족 5일치 식량  
**FOOD KIT (식량형키트)**

**\$100**  
5인 가족 피복/세면도구 등  
**NON-FOOD KIT(비식량형 키트)**

**\$200**  
5인용 안전/방한 텐트 지급  
**SHELTER KIT(쉘터형 키트)**